6적중모의고사5회분 해설(4회차)

[언어지식]

문제1 밑줄 친 낱말의 읽는 법으로써 가장 적당한 것을 1.2.3.4에서 하나 고르시오.

1 정답 3 컴퓨터 시스템에 의외의 약점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어휘 危(あや)うさ 위태로움 緩(ゆる)さ 느슨함, 헐거움

해설 「もろい」는 '깨지기 쉬운, 무른'이란 뜻으로 명사 형태로 쓰여 약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2 정답 1 그는 권력의 중추에 있다.

어휘 権力(けんりょく) 권력 中枢(ちゅうすう) 중추

해설 '중'은 장음인「ちゅう」로 '추'는「すう」로 읽는다. すい라고 읽지 않는 점에 유의한다.

3 정답 4 사용한 접시는 잘 헹구고 나서 넣어주세요.

어휘 凌(しの)ぐ 견디다, 능가하다 繋(つな)ぐ 잇다, 연결하다

해설 「濯(ゆす)ぐ」는 '헹구다'로 「すすぐ」로도 읽는다. 또,「しまう」는 '잘 넣어두다'로 「～てしまう」 '~해 버리다'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정답 3 이번 봄, 나는 처음으로 해외로 부임했다.

어휘 없음

해설 「赴」의 음독은 짧은 「ふ」이다. 「赴(おもむ)く」 '(목적지로)가다, 향하다'라는 동사 활용도 같이 외워두자.

5 정답 1 그녀가 나에게 남몰래 적의를 가지고 있다고는 눈치채지 못했다.

어휘 敵意(てきい) 적의 気付(きづ)く 깨닫다 僅(わず)か 작은, 불과 かすか 희미한
和(なご)やか 온화한, 화기애애한

해설 「密(ひそ)か」는 '남몰래, 은밀히'라는 의미로 그 밖의 선택지도 한자어로 알아두자.

6 정답 2 향기로운 꽃 향기가 주변에 감돌다.

어휘 香(かお)り 향기 伴(ともな)う 동반하다 賑(にぎ)わう 북적거리다

해설 「漂(ただよ)う」는 '떠돌다, 감돌다'라는 의미로 「雰囲気(ふんいき)(空気(くうき))が漂(ただよ)う」처럼 '분위기가

감돌다’라는 표현도 함께 외워두자.

［언어지식］

문제2 (　　) 에 넣는데 가장 적당한 것을 1.2.3.4에서 하나 고르시오.

7 정답　3 결과가 어찌될지, 아직 전망이 서지 않는다.

어휘　見積(みつ)もり 견적　見直(みなお)し 재검토　見晴(みは)らし 전망, 조망

해설　‘전망이 서다’라는 의미로 「見通(みとお)しが立(た)つ」라는 표현을 쓴다. 그 밖의 관용표현으로「見通(みとお)しが明(あか)るい／暗(くら)い」‘전망이 밝다/어둡다’「見込(みこ)みがある／ない」‘전망, 가능성이 있다, 없다’도 함께 외워두자.

8 정답　4 그의 발견은 그전까지의 상식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었다.

어휘　常識(じょうしき) 상식　幹線(かんせん) 간선　震源(しんげん) 진원　基地(きち) 기지　くつがえす 뒤엎다

해설　「根底(こんてい)」는‘근저, 토대, 근본’이란 의미로 쓰인다.「常識(じょうしき)を覆(くつがえ)す」도 함께 익혀두자.

9 정답　3 쓰기 편리함을 우선으로 고려했더니, 필연적으로 이 형태가 됐다.

어휘　必然(ひつぜん) 필연　形(かたち) 형태

해설　접미어 「～的(てき)」를 묻는 문제로「～的(てき)」가 붙으면 품사는 형용동사로 바뀌는 것에 주의하자. 「～性(せい)」는 「可能性(かのうせい)」‘가능성’, 「～度(ど)」는 「難易度(なんいど)‘난이도’, 「～系(けい)」는 「理科系(りかけい)」‘이과계열’등으로 활용한다.

10 정답　1 밭에 별안간 큰 구멍이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어휘　畑(はたけ) 밭　穴(あな) 구멍　唐突(とうとつ) 당돌　突然(とつぜん) 돌연　突出(とっしゅつ) 돌출

해설　「突如(とつじょ)」는‘갑자기, 별안간’으로 「突如として」라고도 활용한다. 「突然」은 「突然として」로 활용하지 않은 점이 함정이다.

11 정답　2 임금 인하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으로 일을 보이콧했다.

어휘　賃金(ちんぎん) 임금　引き下(ひき)げ(さ) 인하　抗議(こうぎ)する 항의하다　ノイローゼ 노이로제
モニターする 모니터링 하다

해설　ボイコット(boycott) 은 불매운동, 단결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１２ 정답 4 삼일 밤낮을 소비해 그녀는 그 작품을 만들었다.

어휘 三日三晩(みっかみばん) 삼일 밤낮 燃(も)やす 불태우다 砕(くだ)く 부수다 損(そこ)なう 해치다

해설 「費(つい)やす」는 '소비하다, 낭비하다'로 다른 선택지의 동사도 함께 익혀두자.

１３ 정답 1 설명회에서는 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분출했다.

어휘 不満(ふまん) 불만 復興(ふっこう) 부흥 暴露(ばくろ)する 폭로하다 憤慨(ふんがい)する 분개하다

해설 「噴出(ふんしゅつ)」는 '뿜어 나오다'라는 의미로 「憤慨」의 「憤」한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참고로「噴(ふ)く」'뿜다', 「憤(いきどお)る」'분개하다' 동사 활용도 기억해 두자.

［언어지식］

문제3 밑줄 친 낱말에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1.2.3.4 에서 하나 고르시오.

１４ 정답 4 이 잡지는 시기 적절한 기사가 많이 실려있다.

어휘 雑誌(ざっし) 잡지 載(の)る 싣다

해설 「タイムリー(timely) 」는 '적시의' '때에 알맞음'이란 의미로 쓰인다. 그밖에 야구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로 「タイムリーヒット」'적시타'도 알아두자.

１５ 정답 2 이번 계획에 그의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된다.

어휘 存在(そんざい) 존재

해설 「不可欠(ふかけつ)」는 한자어 그대로 '불가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必要不可欠(ひつようふかけつ)」도 함께 알아두자.

１６ 정답 1 그녀는 언제나 부산하게 걷고 있다.

어휘 注意深(ちゅういぶか)い 주의 깊은 息(いき)が苦(くる)しい 숨쉬기 힘든

해설 「せかせか」는 '말투나 동작이 안정되지 않고 부산한 모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유사표현은 1번「落(お)ち着(つ)きがない」'침착함이 없는'이 된다.

１７ 정답 2 그의 이야기에 모두들 질렸다.

어휘 腹(はら)を立(た)てる 화를 내다

해설 「へきえき(辟易)」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심하게 민폐를 입어 지긋지긋하다, 지겹다'란 의미이다. 따라서 유사 표현은 2번 「飽(あ)きている」가 된다.

１８ 정답 1 저 사람은 남이 만든 것을 모방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어휘 傷(きず)つける 상처 입히다
해설 「模倣(もほう)する」는 한자어 '모방하다'로 유사어는 1번 「真似(まね)る」가 된다.
「倣(なら)う」 '따르다, 모방하다'의 동사 활용도 함께 익혀두자.

１９ 정답 2 이제 그런 추한 짓은 하지 마세요.

어휘 ～まねをする ~짓을 하다 意地悪(いじわる)だ 심술궂은
해설 「見苦(みぐる)しい」는 '꼴사납다, 보기 흉하다'란 뜻으로 유사표현은「みっともない」가 적절하다.

［언어지식］
문제4 다음 낱말의 사용 법으로써 가장 적당한 것을 1.2.3.4에서부터 하나 고르시오.

２０ 정답 4 나에게는 그 제안은 매우 민폐이다.

어휘 申(もう)し出(で) 제안, 신청
해설 「はなはだ」는 '정도가 심한, 매우, 몹시'란 부사어로 관련어로는「甚(はなは)だしい」 '정도가 보통을 넘다, 심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활용도 함께 외우자.

２１ 정답 2 지난달 분과 이번 달 분의 요금을 중복해서 지불한 것 같다.

어휘 チェック 체크 二度と 두 번 다시
해설 「重複(ちょうふく)」 '중복'은 '같은 일이 몇 번이고 계속되는 것, 겹쳐지는 것'이라는 의미다.「じゅうふく」라고도 읽는다.

２２ 정답 2 그 정치가의 발언은 물의를 일으켰다.

어휘 ～に値(あたい)する ~할 가치가 있다 照(て)らす 비추어 보다
해설 「物議(ぶつぎ)をかもす」 '물의를 일으키다'라는 관용표현을 알면 쉬운 문제로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는 동사들은 항상 세트로 암기하자.

２３ 정답 4 그녀는 1년에 200만엔 저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어휘 貯金(ちょきん) 저금 津波(つなみ) 지진해일
해설 「達成(たっせい)」은 '성취하는 것, 목적을 이루어 성공하다'라는 의미이다.

２４ 정답 1 얼마 전의 폭우로 지금까지의 고생이 헛되고 말았다.

어휘 先日(せんじつ) 얼마 전 大雨(おおあめ) 폭우 せりふ 대사

해설 「台無(だいな)し」는 '일이나 물건이 심하게 상하거나 더러워지는 것, 뒤죽박죽이 되는 것. 또는 그런 모양'이란 의미로 문제에서는 '헛되고 말다' 또는 '물거품이 되다'로 보면 된다.

２５ 정답 1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어휘 事実(じじつ) 사실 欠(か)ける 결여되다 思(おも)いやり 배려 信頼(しんらい) 신뢰

해설 「歪(ゆが)める」는 '도리·진실을 왜곡시키다'란 동사로 「歪(ゆが)む」 '모양이나 마음이 삐뚤어지다, 일그러지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도 함께 외워두자.

[언어지식]

문제5 다음 ( )에 넣는데 가장 적당한 것을 1.2.3.4에서 하나 고르시오.

２６ 정답 3 그녀에게는 천성적으로 뛰어난 예술적 재능이 갖추어져 있다.

어휘 優(すぐ)れる 뛰어나다 芸術的(げいじゅつてき) 예술적 才能(さいのう) 재능 備(そな)わる 갖추어지다

해설 「～ながら」용법 중 하나인 「生(う)まれながら」는 '천성적으로, 날 때부터'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밖에 「涙(なみだ)ながらに」 '눈물 흘리며' 「昔(むかし)ながらの」 '옛날 그대로의' 「家(いえ)に居(い)ながらにして」 '집에 있으면서'라는 표현도 어휘라 생각하고 함께 외우자.

２７ 정답 1 솔직히 사과하면 용서해 주었을 것을, 그렇게 변명만 하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도 사라진다.

어휘 素直(すなお) 순순함, 순수함 言(い)い訳(わけ) 변명

해설 '~해 주다'이므로 「～てやる」를 쓰며, 「～ば、～ものを」는 '~이면, ~했을 것을'이란 의미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 불만, 비난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２８ 정답 4 누나의 결혼, 동생의 대학합격, 우리 집은 연초부터 좋은 일뿐이다.

어휘 年明(としあ)け 연초

해설 접미어 「～ずくめ」는 '~일색, ~뿐'이란 의미이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예가 「悪(わる)いことずくめ」 '나쁜 일 일색' 「黒(くろ)ずくめ」 '검정색 일색' 「白(しろ)ずくめ」 '하얀색 일색' 「規則(きそく)ずくめ」 '규칙 일색'도 함께 외워두자.

29 정답 1 명색이 자네가 그런 초보자가 할 듯한 실수를 하다니 곤란해요.

어휘 初心者(しょしんしゃ) 초보자

해설 「명사+ともあろう」는 앞의 명사를 대단하다고 보는데 실제는 그와 반대로 그것에 걸맞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비난, 비판, 의문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다.

30 정답 1

<전화로>

손님 : 물품 배달은 언제 되나요?
점원 : 오늘은 무리입니다만, 내일 점심까지라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휘 配達(はいたつ) 배달

해설 겸양표현을 나타내는 「お＋동사ます형＋する」를 사용해 「お届けする」가 되며, 「する」의 가능표현인 「お届けできる」를 사용한다. 「お＋동사ます형＋できる」가 '~하실 수 있다'라는 존경이 아닌 것에 주의하자.

31 정답 3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행정 태만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어휘 犠牲者(ぎせいしゃ) 희생자 行政(ぎょうせい) 행정 怠慢(たいまん) 태만

해설 「～ざるを得ない」는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문제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라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완곡한 단정의 표현임에 주의하자.

32 정답 1 지금까지 그가 말 한대로 해왔는데,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오다니, 이 계획은 백지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휘 突(つ)きつける 들이대다 白紙(はくし)に戻(もど)す 백지로 돌리다

해설 「～よりほかあるまい」의 「あるまい」는「ないだろう」란 의미이므로 「よりほかないだろう」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よりほかない」는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같은 표현으로 「～しかない」「～ほかない」도 함께 알아두자.

33 정답 4 예, 일로 인해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요.

A : 가토씨, 최근 얼굴을 볼 수 없네요. 잘 지내실까요.
B : 예, 일로 인해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요.

어휘　顔(かお)を見(み)せる 얼굴을 보이다,나타나다　かなり 상당히
해설　형용사의 존경표현은「~くていらっしゃる」를 사용한다. 형용동사는「~でいしゃっしゃる」이다.

34 정답　1 그 사장은 주변사람에게 "돈으로 못 살건 없다"라고 아무 거리낌없이 말한다.

어휘　周囲(しゅうい)　주위
해설　「はばかる」는 '꺼리다'는 의미로「~てはばからない」는 '아무 거리낌 없이~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たら～で」는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해서 '~이면~인대로' '~하면~한대로'라는 의미이다. 그 밖에「～なかったら～なかったで」「～ば～たで」「～なければ～ないで」「～たなら～たで」「～するなら～するで」「～ないなら～ないで」도 함께 알아두자.

35 정답　3 대학에 합격은 하고 싶은데, 붙으면 붙은 대로, 이번에는 학비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어휘　学費(がくひ) 학비　払(はら)う 지불하다
해설　「～たら～で」는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해서 '~이면~인대로' '~하면~한대로'라는 의미이다. 그 밖에 「～なかったら～なかったで」「～ば～たで」「～なければ～ないで」「～たなら～たで」「～するなら～するで」「～ないなら～ないで」도 함께 알아두자.

[언어지식]
문제6　다음 문장의 ★ 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것을 1.2.3.4에서 하나 고르세요.

36 정답　3 6개월간에 걸쳐 개최된 박람회는 오늘로서 폐막한다.
올바른 문장　半年間にわたって開催された博覧会は本日をもって閉幕する。

어휘　開催(かいさい) 개최 博覧会(はくらんかい) 박람회 閉幕(へいまく) 폐막
해설　「～にわたって」는 '~에 걸쳐'로 앞에는 기간, 범위를 가리키는 말이 온다. 따라서 가장 앞에 오며, 「～をもって」는 기한의 한정을 나타내는 '~(으)로서, ~을(를) 끝으로'라는 의미로 맨 뒤에 온다. 나머지 '박람회'를 수식하는 것은 '개최된'이므로 별표에 오는 세 번째 문장은 3번 '개최된'이 된다.

문장의 순서 조합은 문형의 접속형태, 연체수식형태, 조사의 쓰임 등에 주의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선택지 4개중 일단 2개만 붙일 수만 있다면, 90%이상은 정답을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찬찬히 따져보자.

37 정답 4 저출산 문제도 물론이지만 젊은이들의 실업문제도 심각하다.
올바른 문장 少子化問題もさることながら若者の失業問題も深刻だ。

어휘 少子化(しょうしか) 저출산화 失業(しつぎょう) 실업 深刻(しんこく)だ 심각하다
해설 「AもさることながらBも」는 'A도 물론 그렇지만, 하지만 B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란 완곡한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에 오는 문장은 4번 '젊은이들의 실업문제'가 된다.

38 정답 1 원고측의 증언에는 어떤 의심을 품을 여지는 없다.
올바른 문장 原告側の証言には何ら疑いを差し挟む余地はない。

어휘 原告(げんこく) 원고 証言(しょうげん) 증언
해설 「疑(うたが)いを差(さ)し挟(はさ)む」는 '의심을 품다' 「余地(よち)がない」는 '여지가 없다'로 관용어 표현이라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평소 관용적인 표현들은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39 정답 3 어제까지의 포근함과는 달리 오늘은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다.
올바른 문장 昨日までのあたたかさとはうってかわって今日は冷たい雨が降っている。

어휘
해설 「~とはうってかわって~」 '~와 완전히 달리~'란 의미이다. 따라서 앞뒤가 상반된 내용이 와야 하므로 어제는 따뜻했고, 오늘은 찬 비가 내린다는 내용이 오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 「昨日までの」뒤에는 명사가 와야 하므로 「あたたかさ」가 제일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 「~が降っている」이므로 앞에는 당연히「冷たい雨が」가 오겠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오늘은'이다.

40 정답 2 중요한 시험을 10일 후로 앞두고 모든 학생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올바른 문장 大事な試験を10日後にひかえていずれの学生も緊張しているようだ。

어휘 ひかえる 앞두다 緊張(きんちょう)する
해설 「~を~に控(ひか)えて」란 문형을 알면 쉬운 문제이다.

[독해]
문제7 다음 문장을 읽고, 문장 전체의 취지에 입각해서, 41부터 45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1.2.3.4에서 하나 고르시오.

해석　지금까지 여러 대학에서 일본음악사 강의를 담당해왔지만, 학생이 제출하는 리포트 종류를 읽고 있으면, 정해진 (주1)상투어, 예를 들면 “일본전통음악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던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일본음악을 차세대에게 전해주고 싶다”와 같은 말이 자주 나온다. 이것이 [41] 우등생적인 표면을 표명해두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약아빠진 전략이라면, 혹은, (주2)샤미센음곡에 (주3)빠져있는 희소 학생의 주장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된다. 그러나,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평소에는 j-pop이나 락(rock)밖에 안 듣고, (주4)쟁·샤미센은 (주5)일고조차 하지 않는 [42], 아무래도 진심으로 “일본전통음악은 훌륭하다”고 들은 적도 없으면서, 소박하게 믿고 있는 것 같다. [43], 모든 학생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왠지 걱정이 된다.

본심과 표면을 가려 쓰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전통음악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음악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좋은지 나쁜지, 자신 속의 평가를 (주6)저울질하기 전에 “일본의 전통문화는 훌륭하다”라는 관념이 주입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느끼는 것이다. 적어도, [44]. 원인은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문부과학성의 전통문화를 중시하자는 교육정책의 성과일지도 모른다.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주입이다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다지 찬동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에 전통음악 업계가 기회가 왔다는 듯이 편승하는 것도 [45], 본디 전통음악의 장래에도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주1) 常套句 : 어떤 상황에서 언제나 정해져 쓰여지는 말
(주2) 三味線 : 일본의 전통 현악기
(주3) 耽溺 : 한 가지 일에 열중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주4) 箏 : 일본의 전통 현악기
(주5) 一顧だにしない : 일고조차 하지 않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음
(주6) 天秤にかける : 2개의 우열 등을 비교하다. 저울질하다.

어휘　提出(ていしゅつ)する 제출하다　類(たぐい) 종류　誇(ほこ)る 자랑하다　頻出(ひんしゅつ) 빈출　優等生(ゆうとうせい) 우등생
建(た)て前(まえ) 표면　ズル賢(がしこ)い 교활하다, 약삭빠르다　稀少(きしょう)だ 매우 드물고 적음　言(い)い分(ぶん) 주장
素朴(そぼく)だ 소박하다　使(つか)い分(わ)け 구별해 씀　刷(す)り込(こ)む 주입되다　政策(せいさく) 정책　本質的(ほんしつてき) 본질적
賛同(さんどう)する 동의하다　好機(こうき) 좋은 기회　到来(とうらい) 도래　～といわんばかりに ~라는 듯이
便乗(びんじょう) 편승　そもそも 본디, 애당초

[41] 정답　2

해설　문장의 흐름을 파악하며 읽으면서 흐름상 어떤 단어나 내용이 들어갈지를 상상하며 읽어간다. 문장의 호응관계도 역시 주의하며 읽는다. 문제에서 ‘이것이 (41)우등생적인 표면을 표명해두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약아빠진 전략이라면’이라 했으므로 적당한 부사는‘일단, 우선은’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とうてい」는‘도저히’로 뒤에는‘무리이다, 불가능하다’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하며, 「どうしても」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해도’, 「もしくは」는 ‘A 혹은 B’라는 의미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42 정답 2

해설 문장을 요약하면 ‘학생들과 얘기해보면 샤미센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전통음악은 훌륭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가 되므로 ‘~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3 정답 4

해설 앞부분은 ‘학생들은 그냥 전통음악은 훌륭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이며, 뒷문장은 ‘모든 학생이 전부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이므로 앞 문장과 뒷문장과의 관계상 ‘물론’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おそらく」는 ‘아마, 필시’로 뒤에 「だろう・でしょう」를 수반하며,「AそれともB」는 ‘A가 아니면 B’로 A, B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접속사이다.

44 정답 2

해설 제시어는 ‘건전하다’이다. 앞 문장에서 “일본의 전통문화는 훌륭하다”라는 관념이 주입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느낀다’라고 했으므로 ‘그 상황이 건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45 정답 2

해설 앞 문장에서 ‘~찬동할 수 없다’고 했고, 뒷문장에서 ‘이러한 경향에 ~편승하는 것도’라며 첨가하는 표현이 왔으므로 ‘찬동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번 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조사 「も」가 정답의 힌트인 것이다. 평소에 조사의 쓰임에 조금 민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독해]

문제8 다음 (1)에서 (4)의 문장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가장 알맞은 것을 1.2.3.4에서 하나 고르시오.

(1)

초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시력은 6.0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나라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은 좋아 봐야 2.0. 보는 기능이 있어도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의 펭귄은 하늘을 나는 대신에 바다를 헤엄친다. 하늘을 나는 기능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헤엄치는 것에 에너지를 쓰기로 한 것이다. 사람은 곧잘 남을 보고「○○를 할 수 있어서 부럽다.」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을 뿐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어휘　草原(そうげん) 초원　視力(しりょう) 시력　うらやましい 부럽다

46 필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1 능력은 그 사람의 재능과 노력에 크게 관계한다.
2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간단히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3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다.
4 기능은 있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답　3

해설　초원에 사는 사람의 예와, 펭귄의 예의 공통된 내용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을 뿐이다'란 내용이다. 이 부분이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2)

컴퓨터는 절대로 인간 대신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폭탄처리를 시킨다고 하자. 그런데 도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직감이나 감각을 사용하여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폭탄을 처리한다. 그 감각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분야일 게다. 우리들은 평소 지식이나 교양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은 직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공에는 지식을 동반하는 직감력이 필요하다.

어휘　爆弾(ばくだん) 폭탄　処理(しょり)する 처리하다　思(おも)いがけない 예기치 못한　乗(の)り越(こ)える 극복하다
勘違(かんちが)い착각　直感(ちょっかん) 직감　役割(やくわり)を果(は)たす 역할을 다하다

47 필자는 컴퓨터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1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극복하려는 감정
2 비상사태에도 지식이나 감각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는 힘
3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감각
4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힘

정답　2

해설　본문에 '그 감각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분야일 게다'란 부분의 '그 감각'이란 '인간은 직감이나 감각을 사용하여 곤란한 상황을 극복한다'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컴퓨터의 부족한 점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3)

아이들에게 정리를 시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는 서로 엉겨 붙어 30분 동안 놀도록 한 후에 정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놀이는 자극이 크기 때문에

뇌가 잘 활동합니다. 그래도 뇌는 익숙해지면 질려버려 의욕을 잃습니다. 그것을 30분 후에 멈추면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뇌가 발달해 가고 놀이와 일을 능숙하게 양립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뇌에 한껏 자극을 준 후에 딱 멈춥니다. 그런 반복이 좋습니다.

어휘 くっつきあう 서로 달라붙다 刺激(しげき) 자극 効率(こうりつ)よく효율 좋게 両立(りょうりつ)する 양립하다
思(おも)いっきり 과감히 ピタッと (갑자기 멈추는 모양)딱 繰(く)り返(かえ)し 반복

48 필자에 따르면 뇌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가하는 것이 중요한가?
1 뇌가 의욕을 잃을 때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것
2 뇌가 익숙해지지 않게 자극을 계속해서 주는 것
3 뇌가 잘 활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4 뇌가 질리기 직전에 자극을 멈추는 것

정답 4
해설 본문의 '뇌는 익숙해지면 질려버려 의욕을 잃습니다. 그것을 30분 후에 멈추면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뇌에 한껏 자극을 준 후에 딱 멈춥니다. 그런 반복이 좋습니다.'라는 내용의 이해가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즉 '뇌는 질리면 의욕이 사라지므로 질리기 전에 자극을 멈추고 그 반복을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된다.

(4) **다음은 어떤 회사가 거래처에 보낸 메일이다.**

미나미하라 주식회사
마츠모토 미에코 님

히라타 공업주식회사
히라타 나오타카

부품대금 지불 확인

안녕하십니까? 귀사가 날로 번영하심을 경사스럽게 생각합니다.
4월에 납품한 부품대금에 관해서 6월말에는 결제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까지 입금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5월 5일에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5월에는 다른 부품을 새로 납품해드렸고 이 부품들의 지불기한은 7월말로 되어 있고, 청구서는 6월 5일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사무처리에 있어 지장이 있기 때문에 7월 말에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어휘 拝啓(はいけい) 삼가 아뢰다(서간문 말머리에 사용하는 말) 納品(のうひん) 납품 請求書(せいきゅうしょ) 청구서
弊社(へいしゃ) 폐사(자기 회사를 낮춰 부르는 말) 支障(ししょう) 지장
敬具(けいぐ) 삼가 말씀 드리다(서간문 마지막에 사용하는 말)

49 부품 대금에 대해서 이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4월에 납품한 부품대금과 5월에 납품한 부품대금이 7월말에 지불되었다.
2 5월에 청구한 부품대금의 지불기한은 7월말이었다.
3 4월에 납품한 부품대금과 6월에 납품한 부품대금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다.
4 7월에 지불해 주길 바라는 부품대금의 일부는 지불기한이 6월말이었다.

정답 4

해설 비즈니스 문서의 경우 앞쪽에 정형화된 인사말이 나오고 접속사 「さて」부터 본론에 해당한다. 날짜와 마감일 등이 나오면 혼동하여 실수하기 쉬우므로 선택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소거법을 이용한다. 우선 1번은 지불되었다는 부분이 틀렸고, 2번은 5월에 청구한 대금은 4월에 납품한 부품대금으로 지불기한은 6월말이었으므로 틀렸고, 3번역시 6월에 납품한 사실은 내용에 없으므로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즉,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4월 미납결제 금액을 5월 납품대금 결제와 함께 7월말까지 부탁 드린다'는 내용이다.

[독해]

문제9 다음 (1)에서 (3)의 문장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가장 적당한 것을 1.2.3.4에서 하나 고르시오.

(1)

일본에 제철 기술이 없었던 시절, 철은 한반도에서 수입해오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철의 생산방법이 전해지자 ①각지에서 경쟁하며 철의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철은 농지를 넓히는 농기구가 되고, 무기인 칼이 되었습니다. 세력 확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잘 잘리고 잘 부러지지 않는 칼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잘 잘리는 것과 부러지지 않는 것과는 철의 성질상, 모순되기 때입니다. 잘 잘리는 칼은 단단해서 부러지기 쉽고, 잘 부러지지 않는 칼은 베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모순을 훌륭하게 극복한 (주1) 일본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일본도의 특징은「부러지지 않는다, 구부러지지 않는다, 아름답다」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②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본도로 유명한 장소는 오카야마 현입니다. 오카야마 현에서 얻을 수 있는 철에는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철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 그 결점을 활용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철은 몇 번이고 두들겨 단단하게 만드는 것인데, 불순물이 많은 철은 불순물이 없는 철 보다 많이 두들 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주2)명도라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 오카야마 현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예술품으로서 사랑 받고 있습니다.

철의 생산이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인간을 죽이는 무기를 발달시켰다는 비윤리적인 측면은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점조차도 이점으로 바꾼다는, 물건 만들기에 대한 열의와 정열은 잊어서는 안 되는 정신이 아닐까요.

(주1) 일본도 : 일본 고유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칼
(주2) 명도 : 뛰어난 칼, 유명한 칼

어휘 製鉄(せいてつ) 제철 競(きそ)う 경쟁하다 着手(ちゃくしゅ)する 착수하다 勢力(せいりょく) 세력 拡大(かくだい)확대 矛盾(むじゅん) 모순
重(かさ)ねる 거듭하다 克服(こくふく)する극복하다 曲(ま)がる 구부러지다 画期的(かっきてき) 획기적
不純物(ふじゅんぶつ) 불순물 含(ふく)む 포함, 함유하다 ～に向(む)いていない ~에 어울리지 않다
叩(たた)く 두드리다 大半(たいはん) 대부분 加速(かそく) 가속 非論理的(ひろんりてき) 비논리적 側面(そくめん) 측면 欠点(けってん) 결점
利点(りてん) 이점 熱意(ねつい) 열의 情熱(じょうねつ) 정열 精神(せいしん) 정신

50 ①<u>각지에서 경쟁하며 철의 생산에 착수</u>했던 것은 이유는 무엇인가?
1 철은 매우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며, 예술품으로서 사랑 받게 되었기 때문에
2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느 곳보다도 뛰어난 철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3 일본에 제철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와의 무역에 불리함이 생겼기 때문에
4 잘 베이고 잘 부러지지 않는 칼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 2
해설 밑줄 부분의 이유를 묻는 문제는 대부분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그 뒤에 나오기 마련이다. 본문에서도 '세력 확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그 이유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51 ②<u>매우 획기적인 것</u>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획기적인 것인가?
1 잘 잘리는 것과 부러지지 않는 것은 철의 성질로서 모순되는 것
2 철의 성질인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오랜 세월 동안 거듭해 왔다는 것
3 철의 성질로부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수한 칼이 만들어졌다는 것
4 옛날에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아름다운 일본도를 탄생시켰다는 것

정답 3
해설 밑줄 부분의 내용이나 주체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그 문장 전체를 봐야 한다. 본문에서 '이것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라고 나오므로 결국 '이것은' 을 찾으라는 지시어 문제와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앞부분에 진술된 '철의 성질이 가진 모순점을 극복한 일본도가 탄생했다' 는 내용을 가리키므로 정답은 3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밑줄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문장 전체를 보는 습관을 들이자.

52 이 글에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1 철의 생산에 있어서 삼림을 잃고, 전쟁 무기가 발달했다는 비윤리성은 부인할 수 없다.
2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결점조차도 이점으로 바꿔서, 명도를 탄생시켰다는 것이 훌륭하다.
3 철의 생산으로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인간의 윤리관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상황에서도 이점을 만들어내는 정신을, 어느 시대에서나 중요하게 여기고 싶다.

정답　4

해설　필자의 주장이나 생각은 처음과 마지막 단락에 나온다고 보면 된다. 본문에서도 역시 마지막 단락의 ‘그러나, 결점조차 ~잊어서는 안 되는 정신이다’가 앞서 길게 철과 칼의 예를 들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2)

학습성 무력감이라는 말이 있다. 예로서는 서커스 천막(오두막)의 코끼리 이야기가 유명하다. 서커스 천막으로 끌려온 어린 코끼리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도망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다리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묶여 있어 어린 코끼리의 작은 힘으로는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 후, 성장해서 커진 코끼리는 쇠사슬을 끊을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일까? 그것은, 어린 시절에 몇 번이고 시도했음에도 무리였다는 것을 학습해 버렸기 때문이다. 즉「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으면, ①기회가 생겨도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한 번 뇌에 입력 되어버린 정보는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 버리는 모양이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은 차근차근히 생각해보자. 이전에 할 수 없었다고 해서 지금도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어릴 때는 과자를 사는 일조차 사치였던 자신도 지금은 과자 정도는 바로 살 수 있지 않은가? ②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은 분명히 다르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쇠사슬은 무엇일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에 한해서「할 수 있는」일은 꽤 많이 있다.

어휘　無力(むりょく) 무력　感試(かんこころ)みる 시도하다　鎖(くさり) 쇠사슬　引(ひ)きちぎる 잡아 찢다
もはや 이제는 더 이상 贅沢(ぜいたく) 사치　知(し)らず知(し)らずのうちに 모르는 사이에
～に限(かぎ)って ~에 한해서　結構(けっこう) 꽤, 상당히

53　①기회가 와도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왜인가?

1 몇 번이나 도전해 보고, 겨우 포기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2 어린이는 몇 번이고 시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른에게는 없기 때문에
3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4 옛날에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3

해설　밑줄 친 부분의 문장이「つまり」로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앞 문장과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다는 것이므로 바로 앞 문장에 ‘왜일까? 그것은 ~때문이다’라고 저자가 묻고 답한 부분에 힌트가 있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몇 번이고 시도했음에도 무리였다는 것을 학습해 버렸기 때문이다’를 달리 표현한 3번이 정답이다.

54　②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1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의 나는 잘 생각할 수 있다.
2 과거에는 힘이 없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
3 과거에 자신이 생각했던 상황과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4 과거의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과 지금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똑같지 않다.

정답 4
해설 밑줄 부분의 의미는 결국 두 번째 단락 시작부터 밑줄 전까지의 내용을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다. 즉 '뇌에 입력된 정보 즉, "난 할 수 없다" 라는 정보가 상황이 바뀌어도 남아있어 현재의 자신까지도 "할 수 없다" 라고 얽어 메는데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된다.

55 필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실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왜 할 수 없는지 잘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을 알게 된다.
4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에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정답 1
해설 54번 문제를 이해했으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즉, 학습성 무력감을 코끼리와 '할 수 없다' 고 생각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뇌가 과거에 일단 "할 수 없다" 고 기억해버리면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나도 모르게 포기해버리는 것을 말하므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된다.

(3)

일본인은 비교적 안심·안정감을 추구한다. 그런 풍토가 (주)종신고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내었고, 성공으로 이끌었다.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보수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안심하고 회사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연소자는 연장자를 공경해야만 하는 유교적인 생각이 있는 것도 조직에는 도움이 되었다.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은 ①<u>도덕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제도</u>였기 때문이다. 임금이 낮고, 남에게 고용되는 입장에 있는 젊은이도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일을 했다. 또 근무 연수가 길다는 것은 ②<u>회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노동력이 된다.</u> 자사에서 개발한 것을 타사로 유출될 위험도 없고, 회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통솔력을 발휘해준다. 이러한 제도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지탱해주었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높이 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황으로 인해, 그 안정이 무너졌다. 연장자에 지불하는 높은 임금이 부담이 되어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사는 이미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연장자를 공경한다는 사고가 엷어지는 것도 그것을 가속시켰다. 일본사회는 전에 없는 불안정한 경쟁사회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지는 사람이 많다. 안정을 좋아하는 일본인이 불안정한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

인가, 큰 과제이다.

어휘　比較的(ひかくてき) 비교적　風土(ふうど) 풍토　導(みちび)く 이끌다, 인도하다　報酬(ほうしゅう) 보수
忠誠(ちゅうせい)を尽(つ)くす 충성을 다하다　敬(うやま)う 공경하다　儒教的(じゅきょうてき) 유교적　道徳的(どうとくてき) 도덕적
賃金(ちんぎん) 임금　統率力(とうそつりょく) 통솔력　発揮(はっき)する 발휘하다　リストラ 구조조정　薄(うす)れる 엷어지다
かつてない 전에 없는　乗(の)り切(き)る 극복하다

56　여기서의 ①도덕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제도란 무엇인가?
1 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해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2 오랫동안 근무한 연장자가 상사가 되어 지도하는 것
3 안심하고 회사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4 오래 근무할수록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

정답　2
해설　'도덕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제도'란 결국 종신고용제도를 말하므로, 그 설명에 맞는 선택지를 찾는 것이 포인트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

57　②회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노동력이 된다는 것은 왜인가?
1 오래 일한 사람은 목표가 명확하고, 불만도 없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2 리더가 되면, 회사를 잘 알려고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3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4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는 데다가, 외부로 유출될 걱정도 없기 때문에

정답　4
해설　밑줄 친 부분의 이유는 바로 뒷문장에 기술되고 있다. 즉 '자사에서 개발한 것을~ 통솔력을 발휘해준다'라는 부분을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58　필자는 일본사회에 있어서 무엇이 과제라고 생각하는가?
1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 주는 것
2 회사가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게 되어, 젊은이가 안정을 추구할 수 없게 된 것
3 불황으로 인해, 높이 평가되었던 안정된 제도가 무너진 것
4 경험한 적 없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

정답　4
해설　마지막 단락 맨 끝 부분에 '일본사회는 전에 없는 불안정한~ 불안정한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큰 과제이다.'라고 기술된 부분을 요약하면 4번이 된다.

[독해]

문제 10 다음 문장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가장 적당한 것을 1.2.3.4에서 하나 고르시오.

(1)

「어째서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낙담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때로는, 말하는 것에 무의미함을 느끼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절망해 버린 적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회가 넓어져, 가치관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에는 ①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공연히 고민할 필요는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민방법을 바꾸는 것이다.「어째서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인가」가 아니라「서로 알 수 없는 사람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을까」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상대에 대해 전혀 모른다. 자라온 환경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경험해 온 것도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서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선, 자신과 상대와는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좋은 의미로「포기」이다.「보통은 이렇게 해」「그것은 상식이 아니야」라고 생각해도, 보통이 보통이 아니게 되고, 상식이 상식이 아니게 되는 것이 현대이다. 우리들은 ②아주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틀(형식)에 박힌 생활을 해서, 사람의 일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 틀에 박히면 안심하게 되고 매뉴얼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은 과거의 흔적인지도 모른다. 일본의 무사도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틀에 박힌 도이다. 지금은 그런 공통의 틀은 통용되지 않는다.

우선은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들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말이「좀 더 잘 생각해 봐」즉,「너의 생각은 틀렸어. 주위 생각에 맞춰」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상대가 틀렸고 주위가 맞는 것일까? 게다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만 사물을 이해한다. 그 지식이나 경험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라면, 이해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의 생각에 맞추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며 존중하는 것이다. 의견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쌍방이 서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옳음을 판정하기 위한 대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③「가치관은 공유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야 말로 필요하다. 완벽한 상호이해 등은 의미가 없는 일이며, 원하면 원할수록 실망할 뿐이다.

(주) 型にはまる : 정해진 방법으로 개성이나 독창성이 없다.

어휘 落胆(らくたん)する 낙담하다 誰(だれ)しも 누구나 絶望(ぜつぼう)する 절망하다 多様化(たようか) 다양화
むやみに 공연히, 지나치게 誤解(ごかい) 오해 マニュアル 매뉴얼 名残(なごり) 흔적, 자취
武士道(ぶしどう) 무사도 典型的(てんけいてき) 전형적 攻撃(こうげき)する 공격하다 押し付(おつ)ける 강요하다
判定(はんてい)する 판정하다 共有(きょうゆう)する 공유하다 前提(ぜんてい) 전제 完璧(かんぺき)だ 완벽하다
相互理解(そうごりかい) 상호이해

59 ①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 인간관계에서 싫은 경험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절망해 버리는 것

2 남과 대화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항상 혼자 지내려고 하는 것
3 남과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고민하며, 좋은 관계를 좀처럼 만들 수 없는 것
4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정답 3
해설 지시어를 묻는 문제로 본문에서는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킨다. 즉 '「어째서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낙담한 경험은 ~절망해 버린 적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지시어 문제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찾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문장을 넣어 본문을 다시 읽어봐야 한다. 읽어봐서 의미가 이상하면 잘못 찾은 것이므로 꼭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하자.

60 ②아주 힘든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 곤란한 일을 간단히 포기하고, 상식을 무시하게 되어버린 시대
2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획일적인 의견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된 시대
3 옛날에는 상식이었던 것이 지금에는 비상식이 되어버려, 옛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대
4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져,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적어진 시대

정답 2
해설 두 번째 단락의 요지는 '공통의 틀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는 공통의 틀이 통용되지 않는 상대에 대해 전혀 모르며 보통이 보통이 아니게 되고, 상식이 상식이 아니게 되는 사회가 됐다' 라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다.

61 ③「가치관은 공유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들어맞는 예는 어느 것인가.
1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상대의 의견만을 듣기로 했다.
2 상대의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공격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 자신의 의견을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은 이해력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4 상대의 의견에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런 사고 방식도 있는 것이라고 참고로 했다.

정답 4
해설 구체적인 예를 묻는 문제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본문에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며 존중하는 것이다. 의견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쌍방이 서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의 내용에 가장 근접한 것은 4번이다.

62 이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1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2 어느 의견이 바른가를 판단하기까지,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대화를 해도 실망만 하는 상대와는 인간관계를 계속해 나갈 의미는 없다.
4 서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존경하면서 대화해 가는 수 밖에 없다.

정답　4

해설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로 역시 마지막 단락에 필자의 생각이 진술되어 있다. 즉 요지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며 존중하는 것이다. 완벽한 상호이해 등은 의미가 없는 일이며, 원하면 원할수록 실망할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독해]

문제 11　다음 A와 B의 문장을 읽고, 물음에 대한 답으로써 가장 적당한 것을 1.2.3.4에서 하나 고르시오.

A

즐겁지 않은 일은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에는 집중할 수 있지만, 싫은 일, 즐겁지 않은 일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다면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즐겁지 않은 일을 참으면서 계속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은지는 명확해진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하지 않는 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이 중요하니까 라는 이유를 드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B

최종학력이란, 대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야 말로 최종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모두 배웠을 때는 졸업, 즉 이직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즐겁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만두면 아무 것도 익힐 수 없습니다. 애당초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인 이상, 괴로운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등산과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도 노력해서 계속 오른 결과, 훌륭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직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의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경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힘이 생기는 것이야말로 일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휘　苦痛(くつう) 고통　選択(せんたく) 선택　～ない限(かぎ)り ~않는 한　挙(あ)げる 들다　証拠(しょうこ) 증거
最終学歴(さいしゅうがくれき) 최종학력　全(すべ)て 전부　転職(てんしょく) 전직, 이직

63　일에 관해서 A와 B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 A는 한 가지의 일을 계속하는 것은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B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2 A는 안정된 일에는 즐거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B는 어떤 일이든 괴로운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3 A는 자신의 욕구를 믿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B는 고뇌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 A는 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B는 일이야 말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답 3

해설 A는 처음에 '즐겁지 않은 일은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한다면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라는 부분, B는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힘이 생기는 것이야말로 일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라는 부분이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64 A와 B에서 공통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고통을 수반하는 일은 피해야만 한다.
2 인간은 즐거운 일에 보람을 느낀다.
3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4 즐거운 일보다도 눈앞의 일이 중요하다.

정답 3

해설 공통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찾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지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 1번은 A, 2번은 B, 4번은 B에서만 언급된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독해]

문제 12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대한 답으로써 가장 적당한 것을 1.2.3.4에서 하나 고르시오.

인간에게는 주로 잘 쓰는 손이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오른손이고, 대부분의 물건이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다. 어째서 오른손잡이인가? 모두다 똑같이 오른손잡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현재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전세계적으로 9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5000년 전에도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주1)동굴에 남겨진 그림이 오른손으로 그려진 것이나 발굴된 도구가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등으로부터 판명된 것이다. 단, 250만년 전까지 거슬러올라가면 오른손잡이는 59%로 적어지고 또 원숭이나 침팬지는 50%라고 한다. 이러한 것은 인류가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①<u>오른손잡이로 변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u> 것 같기도 하다.

자주 듣는 말이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왼쪽에 있는 심장을 지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심장은 다소 좌측에 쏠리기는 했지만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소의 차이만으로는 오른손을 쓰는 것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 밖에도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에는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나는 좌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라는 설을 지지하고 싶다.

뇌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운동능력에서는 좌측 몸을 우뇌가, 우측 몸을 좌뇌가 제어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이외의 기능으로서는 좌뇌는 논리적 사고를 담당해 언어

와 개념, 계산, 분석 등의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의 지성의 근원이며,「언어 뇌」라고도 불리고 있다. 좌뇌를 손상한 사람이 (주2)우측 몸이 불수가 되는 동시에 (주3)실어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우뇌는「이미지 뇌」라고 불리는데 직감적 사고를 담당하고 있다. 도형의 인식, 직감 등이며, 예술가 중에 우뇌가 우수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좌뇌와 오른손잡이의 관련은 무엇인가?

그 옛날 인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을 익히고, 집단으로 작업하게 되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나 타인과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결국은 ②<u>좌뇌가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u>한다. 우리들은 평소에 주로 좌뇌를 구사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좌뇌가 발달하고, 그것에 의해 우측 몸의 능력이 향상해 오른손잡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항상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오른손에도 아득히 먼 인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즐거워지지 않는가?

(주1) 동굴 : 낭떠러지나 바위 등에 생긴 구멍
(주2) 우반신불수 : 우측 몸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주3) 실어증 :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어휘 利き手(きき手) 잘 쓰는 손 右利き(みぎき) 오른손 잡이 等(ひと)しい 동등하다 占(し)める 차지하다
発掘(はっくつ)する 발굴하다 判明(はんめい)する 판명되다 さかのぼる 거슬러 올라가다 人類(じんるい) 인류
左側(ひだりがわ) 좌측 必然的(ひつぜんてき) 필연적 中央(ちゅうおう) 중앙 たいして 그다지 現状(げんじょう) 현재상황 役割(やくわり) 역할
周知(しゅうち) 주지, 두루 알고 있다 概念(がいねん) 개념 分析(ぶんせき) 분석 源(みなもと) 근원 損傷(そんしょう) 손상
高度(こうど) 고도의 駆使(くし)する 구사하다 営(いとな)む 영위하다 要(よう)するに 요컨대
向上(こうじょう)する 향상되다 何気(なにげ)なく 아무렇지 않게 悠遠(ゆうえん) 아득히 먼

65 필자는 무엇이 ①<u>오른손잡이로 변해간 것을 나타내고 있다</u>고 말하고 있는가?
1 5000년 전에는 이미 90%가 오른손잡이였고, 현재도 거의 같다는 것
2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오른손잡이가 적어지고, 원숭이의 경우는 50%라는 것
3 인류가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많아졌다는 것
4 원숭이의 오른손잡이는 50%인 것에 비해, 250만년 전의 인류는 59%이었다는 것

정답 2
해설 이 문제 역시 앞서 5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이러한 것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로 앞 문장에 '현재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전세계적으로 90%를 차지 한다~ 단 250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오른손잡이는 59%로 적어지고, 또 원숭이나 침팬지는 50%라고 한다.'라는 문장을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2번이다.

66 심장이 좌측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왜인가?

1 과학적으로 증명되고는 있지만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2 왼손이 심장을 지키는 데에 적절하기 때문에
3 오른손을 사용해 심장을 지킨다는 예가 없기 때문에
4 심장은 중앙에 있어서 어느 손을 사용해도 같기 때문에

정답 4

해설 바로 뒷문장에 '왜냐하면 심장은 다소 좌측에 쏠리기는 했지만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소의 차이만으로는 오른손을 쓰는 것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고 했으므로 가장 적절한 대답은 4번이다.

67 이 문장에 따르면, ②좌뇌가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도구를 만들 때에 만들어진 형태를 이미지화하는 것
2 어떤 재료로 무엇을 만들면 편리해질까를 상상해 도구를 만드는 것
3 서로 협력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상대에게 설명하는 것
4 어려운 작업을 알리기 위해 문자나 그림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

정답 3

해설 우선 넷째 단락에 '좌뇌는 논리적 사고를 담당해 언어와 개념, 계산, 분석 등의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의 지성의 근원' 이라 했고, 그리고 밑줄 바로 앞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나 타인과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라 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예를 찾으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68 이 글에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1 오른손잡이인 이유를 생각하면 일이 즐거워지지 않는다.
2 오른손잡이와 인류역사와의 관계가 보여 두근거리는 기분이 되었다.
3 좌뇌의 발달에 의해 오른손잡이가 늘어난 것을 증명하고 싶다.
4 인류는 도구를 사용해 집단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좌뇌를 발달시켰다.

정답 2

해설 마지막 단락에「要するに」는 결론에 들어간다는 일종의 신호라 보면 된다. 그 밖에도 결론 도출을 위한 접속사로서는 「つまり」, 「このように」 등도 함께 알아두자. 즉 필자가 하고픈 이야기는 마지막 단락에 있다.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이나 예를 들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좌뇌가 발달하고 그로 인해 우측 몸의 능력이 향상해 오른손잡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오른손에도 아득히 먼 인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즐거워지지 않는가?'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독해]

문제 13 오른쪽 페이지는, 마스코미 업계 인턴십 모집안내이다. 아래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1.2.3.4에서 하나 고르시오.

69 다음 학생 중 인턴십에 응모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다카하시	매스컴 취업을 목표로 공부 중. 1일 5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 현재 휴학 중.
야마시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지만 매스컴도 생각해보고 싶다. 수업은 주 2회. 인문학부 4학년.
사사키	매스컴에 흥미가 있다. 수업은 오전에만 있고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는다. 이공계 학부 4학년.
리	매스컴 쪽 일을 희망하는 유학생. 사회학부 1학년. 일본어 시험에서 필기에 약하고 청해에 강하다.

1 다카하시
2 야마시타
3 사사키
4 리

정답 2

해설 응모자격이 되는 사람을 찾는 것이므로 응모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1번은 휴학 중이라 안되고, 3번은 이공계 전공이라 안되며, 4번은 문장 작성에 약하므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정보검색에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만 찾아서 꼼꼼히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70 마츠시타는 현재, 이 대학의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재학해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다. 마츠시타가 이 인턴십에 응모하는 경우, 응모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라는 증명서를 취득한다.
2 출신대학의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가져온다.
3 소논문의 양식을 대학교 학생과에 가지러 간다.
4 희망하는 면접 일시를 학생과에 전화로 연락한다.

정답 1

해설 응모 시 필요서류와 방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것 역시 내용과 하나하나 비교하며 아닌 것을 소거해간다. 2번은 출신 대학이 아니라 현재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하므로 오답이며, 3번은 소논문 양식은 자유이므로 학생과에 갈 필요가 없고, 4번은 면접 일시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므로, 정답은 1번 재학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된다.

니지노 대학 학생
매스컴업계 인턴십 모집안내

업계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됨과 동시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시점이나 능력을 익혀,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인턴십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수용기업은 면접 시 상담 후 결정합니다.

● 응모조건
· 본교(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문과계열 전공자(학년불문)
· 1일 5시간, 1개월에 10일 이상 3개월 간, 출근이 가능한 자(수업에 지장이 없는 학생에 한함)
· 매스컴업계 취직희망자 혹은 흥미가 있는 자
·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자
· 규칙을 준수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
따르지 않는 경우, 기간 도중이라도 퇴사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도 가능(단, 일본어로 문장작성이 뛰어난 자에 한함)

● 필요서류
· 응모용지(지정 용지가 학생과에 있습니다)
· 재학증명서
· 현재 지도교수에게 받은 추천서
· 소논문: 다음 주제 중 1가지를 골라 800자 정도로 정리할 것. (서식 자유)
「매스컴에 기대하는 것」「어떤 사회인이 되고 싶은가」

● 응모방법
· 필요서류를 학생과 담당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면접 일시는 후일 전화로 연락합니다.

어휘 インターンシップ 인턴십 貢献(こうけん)する 공헌하다 受(う)け入(い)れ 수용 支障(ししょう)のない 지장이 없다 に限(かぎ)る ~에 한함 主体的(しゅたいてき) 주체적 文章(ぶんしょう) 문장 推薦書(すいせんしょ) 추천서

[청해]
문제1
문제1에서는 우선 질문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문제 용지의 1.2.3.4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하나 고르시오.

1번
여자가 여행사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후 무엇을 합니까?

여: 여보세요. 요전 이집트투어에 신청했는데요, 아무것도 오지 않아서요.

남: 그러세요? 일반적으로 투어요금을 지불하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에 여행안내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 예? 벌써 송금했는데요.
남: 그러세요. 그럼 알아보겠으니 성함과 출발일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여: 다나카, 요시코입니다. 12월 17일 출발 이집트투어인데요.
남: 예. 에~, 다나카 요시코님 "이집트 미혹의 10일간"이군요. 에~, 아, 방을 혼자서 쓰시는 거군요.
여: 예. 그건 요전에 추가로 부탁드렸는데요.
남: 그러시면 그 요금을 별도로 받게 되는데요.
여: 앗! 그래요. 죄송해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남: 그럼,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여행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행 후에 앙케트에 응해주시면 추첨으로 여행권이 당첨되므로 괜찮으시면 해주세요. 안내서에 동봉해드릴 테니까요.

여자는 이후 무엇을 합니까?
1 투어요금을 송금한다.
2 여행안내서를 보낸다.
3 1인실 요금을 지불한다.
4 앙케트에 답한다.

정답 3

해설 문제 1은 과제이해 문제로 '이후 무엇을 하는가', '이후 하는 일의 순서', 이후 하는 일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문제에서는 요금지불은 끝났지만,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별도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깜박 잊고 있었으므로 별도 1인실 요금을 송금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어휘 ツアー 투어 通常(つうじょう) 통상 振り込(ふ)み(こ) 계좌이체 ～済(ず)み ~가 완료됨, 끝남 魅惑(みわく) 미혹 追加(ついか) 추가 「동사ます형+次第(しだい)」 ~하는 대로 즉시 抽選(ちゅうせん) 추첨 同封(どうふう) 동봉

2번
동물병원에서 남자와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제부터 약을 어떻게 먹입니까?

남: 저기요. 강아지가 요전에 받은 약을 전혀 먹질 않아요,,,. 약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녹여 봤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 그건 냄새 때문일거에요. 음식과 함께 먹이면 괜찮을 거에요.
남: 예, 약을 으깨서 먹이에 섞어봤는데.... 그다지.
여: 아, 그게 아니라 음식 안에 그대로 넣는 겁니다.
남: 예?
여: 으깨면 역시 냄새가 나거든요.
남: 그렇군요, 약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군요.

여: 네. 그래도 완강히 먹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 먹게 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말씀 드린 것을 시험해 보세요.
남: 그러네요.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이제부터 약을 어떻게 먹입니까?
1 가루로 만들어 물에 녹여 먹게 한다.
2 부셔서 먹이에 섞어 먹게 한다.
3 음식에 으깨지 않고 넣어 먹게 한다.
4 입을 벌리게 하고 먹게 한다.

정답 3

해설 강아지에게 약을 먹이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묻는 문제로 약 냄새가 나면 강아지가 먹지 않는다고 하므로 약을 으깨거나, 가루로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어휘 こないだ 「このあいだ」의 회화체 粉(こな) 가루 溶(と)かす 녹이다
見向(みむ)きもしない 쳐다 보지도 않는다 潰(つぶ)す 찌그러뜨리다, 으깨다 えさ 먹이
混(ま)ぜる 섞다 頑(がん)として 완강히

3번
풀장에서 선생님과 남학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은 이후 무엇에 주의해야 합니까?

여: 상당히 타임이 좋아졌어. 전에 말했던 포인트 이해한 것 같네.
남: 고맙습니다. 숨을 쉴 때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 응. 덕분에 물의 저항을 덜 받게 됐어. 다음엔 깊은 곳에서 손을 젓도록 신경을 써봐.
남: 아아, 가능한 빨리 저으려고 하다 보니 그만 얕은 곳에서 저어버려서요.
여: 지금은 빨리 젓는 것보다는 그쪽이 우선이야. 손의 각도는 똑바로 뻗고 나서, 지금 이대로 오케이
남: 그렇습니까. 전 똑바로라기 보다는 손을 젖히는 느낌인데요.
여: 응, 그 정도의 감각이 딱 좋아요.

남학생은 이후 무엇에 주의해야 합니까?
1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
2 수심이 깊은 곳에서 손을 젓는 것
3 손을 가급적 빨리 젓는 것
4 손의 각도를 똑바로 뻗는 것

정답 2

해설　선생님이 하는 말 가운데 '깊은 곳에서 손을 젓도록 신경 써라'가 포인트로, 그 후 학생의 대화에서도 '빨리 젓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어휘　息継ぎ(いきつ) 숨을 들이마시는 것　抵抗(ていこう) 저항　浅い(あさ) 얕다　優先(ゆうせん) 우선　そらせる 젖히다

4번

여자와 남자가 광고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 광고디자인, 요전에 수정 부탁한 부분 확인했습니다.

남: 아, 문제는 없었나요?

여: 타이틀 글자는 전에 부탁한 대로 작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의 색상이 조금....

남: 예? 어느 부분요?

여: 요전 배경의 점과 지저분한 것을 지우도록 부탁 드린 것 같은데요.

남: 예, 거의 다 지워서 깔끔해 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여: 예, 그러게요. 근데, 그게 수정되니까 이번엔 배우의 피부색이 신경 쓰여서요. 좀더 밝고 건강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남: 아, 확실히 어두울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바깥 테두리선의 굵기는 괜찮습니까?

여: 예. 그건 문제 없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수정이 끝나면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1　타이틀을 작게 한다.

2　배경의 점이나 지저분한 것을 지운다.

3　피부색을 밝게 한다.

4　바깥 테두리선의 굵기를 바꾼다.

정답　3

해설　타이틀은 부탁한대로 했고, 배경과 지저분한 부분도 부탁한대로 했으나, 이번에는 배우의 피부색을 밝고 건강한 느낌으로 해달라고 한 부분이 해결 포인트이다. 테두리도 문제없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어휘　広告(こうこく)광고　文字(もじ)문자　色合い(いろあい)색상　俳優(はいゆう)배우　肌(はだ)피부　外枠(そとわく)바깥 테두리　修正(しゅうせい)수정

5번

회사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지금부터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남: 이 자료 말인데.

여: 네. 과장님.

남: 조금 내용을 수정해 줬으면 하는데.

여: 네. 이 메모가 달린 부분 말씀이죠?

남: 응, 그거랑, 여기랑 여기 페이지. 숫자가 작아서 보기 불편해서. 어떻게 안되나?
여: 확실히 그렇네요.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볼까요?
남: 아, 괜찮네. 그럼, 표를 추가해. 나는 지금부터 외출할 테니 부탁할게.
여: 지금부터 외출하세요?
남: 응. 5시에는 돌아올 건데. 아! 혹시, 아까, 그 표를 추가하면 매수도 늘어나나?
여: 예. 그렇게 되네요.
남: 그건, 좀 그런데. 역시 그대로가 좋겠어.
여: 예. 그럼, 다 되면 과장님 책상 위에 올려 놓을게요.
남: 아, 아냐. 사이토우군에게 체크해달라고 해. 내가 말해둘 테니까.

여자는 지금부터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1 표를 추가해서 과장님 책상 위에 둔다.
2 표를 추가해서 사이토우씨에게 건네준다.
3 내용을 수정해서 과장님 책상 위에 둔다.
4 내용을 수정해서 사이토우씨에게 건네준다.

정답 4

해설 남자가 처음엔 표를 추가하라고 했으나 마지막에 말을 바꿔 표가 들어가면 자료의 매수가 늘어나므로 원래대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이토우군에게 체크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으므로 메모가 달린 내용만 수정해서 사이토우군에게 건네준다.
어휘 数字(すうじ) 숫자 表(ひょう)を追加(ついか)する 표를 추가하다 枚数(まいすう) 매수 そのまま 그대로

6번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남: 우와. 덥네. 이방.
여: 또 에어컨 상태가 나빠져서.
남: 에, 또? 수리는 부탁했어?
여: 응. 하지만 바빠서 수리하러 오는 건 모레래.
남: 에~,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이 없으면 힘든데....
여: 전에 수리 받을 때 이제 수명이 거의 다됐다고는 했는데. 일단, 선풍기 사올 테니 모레까지만 참아.
남: 응, 하지만 이렇게 툭하면 고장 나는데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여: 그러게. 하지만 비용도 들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잖아.
남: 가격이 어느 정도 되려나. 한번 알아볼까?
여: 아, 그럼 전에 받은 카탈로그가 있어.
남: 그래. 그럼 일단 가격만 체크해 둘게. 살지 말지는 수리하고 나서 결정하지 뭐.

여자는 이후 먼저 무엇을 합니까?
1 에어컨 수리를 부탁한다.
2 선풍기를 사러 간다.
3 에어컨을 새로 산다.
4 카탈로그를 주문한다.

정답 2

해설 중간에 여자가 선풍기를 사올 테니 모레까지만 참으라고 했다. 그 이후의 대화는 에어컨 수리와 관련된 대화로 여자는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했으므로 당장 여자가 할 일은 선풍기를 사러 가는 것이다. 중간에 다른 이야기에 현혹되어 본질에서 벗어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휘 ～なし ~없이 寿命(じゅみょう) 수명 扇風機(せんぷうき) 선풍기 しょっちゅう 자주
買(か)い換(か)える 새로 구매하다 ～に越(こ)したことはない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取(と)り寄(よ)せる 주문해 가져오게 하다 一応(いちおう) 일단

[청해]
문제2
문제2에서는 우선 질문을 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용지의 선택지를 읽어 주십시오.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질문 용지의 1에서 4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하나 고르시오.

1번
리포터가 가게 주인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인기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 여기 가게는 매우 인기가 있어, 언제나 줄이 끊이질 않네요.
남: 아, 고맙습니다. 저희는 창업이래로 쭉 불을 끄지 않고 수프를 계속 졸이기 때문에 맛에 깊이가 있습니다. 저희 손님들 대부분은 이것을 목적으로 와주시고, 맛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면은 매일 아침 제가 직접 만들어 수프와 잘 어울리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좁고 좌석이 적어서 식사 때는 어쩔 수 없이 밖에까지 줄이 생깁니다만, 기다렸다가 먹으면 더욱 맛있다고 말씀해주시는 손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이 빨라서 그렇게 많이 기다리게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메뉴는 3종류로 고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늘려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인기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 수프 맛이 좋기 때문에
2 면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3 가게가 좁고 좌석이 적기 때문에

4 메뉴가 3종류이기 때문에

정답 1

해설 문제 2번은 포인트 이해문제로 '원인, 이유의 이해' '상대의 의견, 주장 중 최고, 최상인 것의 이해', '상대의 의견 주장 중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 문제 역시 가게의 인기 비결을 묻는 문제로, 남자가 수프의 맛이 좋다고 했고 손님들도 그것을 목적으로 온다고 한 부분이 포인트. 지시어 '그것'은 결국 맛있는 수프를 가리키므로 정답은 1번이다.

어휘 行列(ぎょうれつ) 행렬 絶(た)えない 끊이지 않다 創業(そうぎょう) 창업 煮込(に)む 졸이다 手作(てづく)り 손으로 만듦 店舗(てんぽ) 점포 余計(よけい)に 더욱, 한층 回転(かいてん)회전

2번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왜 미술관에 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남자입니다.

여: 야마다군. 주말, 미술관에 다녀왔다며? 자주 가?
남: 응, 한 달에 한번 정도. 건물의 구조라든지, 공간의 이용법 등이 공부가 돼서.
여: 아, 그러고 보니 야마다군, 건축학과였지.
남: 응. 미술관하면 건물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되어 있는 곳도 많아서 재미있거든. 사토우씨는 미술관에 가거나 해?
여: 가끔. 기분이 쳐지거나 할 때. 기분전환도 되고.
남: 아, 확실히 그래. 난 그림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까, 요전에 해설투어에 참가해 봤는데, 상당히 좋았어.
여: 해설투어? 그런 게 있구나.
남: 응.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큐레이터가 작품의 시대배경이라든지, 매력 등을 공짜로 해설해줘. 꽤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해.
여: 흐음. 그렇구나.
남: 딱 봐도 미대생 느낌의 참가자도 많이 있어.
여: 아아, 분명 공부 때문에 오는 거겠지.

남자는 왜 미술관에 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남자입니다.

1 미술관의 건축구조를 보기 위해
2 마음을 쉬게 하고 기분전환하기 위해
3 작품의 시대배경이나 매력을 알기 위해
4 작품을 보고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

정답 1

해설　남자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는 초반에 '건물의 구조나 공간의 이용법에 공부가 된다' 고 한 부분이 포인트. 나머지는 해설투어에 미술 공부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한다는 내용이므로 남학생이 미술관에 가는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

어휘　美術館(びじゅつかん) 미술관　建築(けんちく) 건축　気分転換(きぶんてんかん) 기분전환　学芸員(がくげいいん) 큐레이터　魅力(みりょく) 매력
美大(びだい) 미술대학

3번

라디오에서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 이 노래는 동경에 사시는 키무라씨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옛날 생각나네 하며 들으신 분도 많으리라 봅니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감동이네요. 왜일까요? 우선 이 노래의 리듬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 봅니다만, 이건 오키나와지방의 독특한 리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절한 가사. 이것은 돌아가신 형님에 대한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 합니다. 또, 가수인 나츠키미리씨의 맑은 목소리와 깊은 표현력이 정말로 훌륭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누구나 경험하는 슬픔에 모두들 공감하는 거겠지요.

이 노래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　독특한 리듬
2　가사의 내용
3　맑은 음질
4　빼어난 표현력

정답　2

해설　여러 특징들을 나열하며 맨 마지막에 '그래도 역시'란 부분이 포인트. 앞부분에 '돌아가신 형님에 대한 애절한 가사' 라고 한 부분과 '그래도 역시 누구나 경험하는 슬픔' 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이처럼 '가장 ~인 것은?' 을 찾는 문제는 중간에 '一番', '何より', でも, やっぱり~' 등의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정답이므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 부분부터는 주의 깊게 듣도록 하자.

어휘　リクエスト 리퀘스트　～に応(こた)える ~애 부응하다, 답하다　なんとも 정말로
切(せつ)ない 애절하다　歌詞(かし) 가사　澄(す)む 맑다　共感(きょうかん) 공감

4번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왜 이 병원을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남: 할아버님이 수술하시게 됐다면서요? 어느 병원이에요?
여: 그래요. 야마우치종합병원이라고 아세요? 어제 입원수속하고 수술예약도 하고 왔는데요.
남: 아아, 그래요. 그곳이라면 기술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많다고 평판이 자자하니, 좋을 것 같네요.

여: 예. 시설도 신축건물이고 최신기기도 갖추고 있다고 해서요.
남: 그러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네요. 하지만, 거긴 소개가 없으면 좀처럼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여: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다니는 병원 선생님이 소개장을 써주셔서.
남: 아 그러셨군요. 잘 됐네요. 댁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 예. 여러 병원을 알아봤는데, 결국 어머니와 제가 다니기 편한 곳으로 했어요.
남: 앞으로 얼마 동안은 힘드시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여자는 왜 이 병원을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1 실력 있는 의사가 많이 있어서
2 병원 설비가 갖춰져 있어서
3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소개해줘서
4 집에서 다니기 편리해서

정답 4

해설 여러 가지 병원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여자의 대화가 포인트. 즉 '결국 어머니와 제가 다니기 편한 곳으로 했다'고 한 부분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어휘 ご存知だ 아시다「知っている」의 존경표현 手続き 수속 評判だ 평판이 좋다
施設 시설 立て直す 재건축하다 揃う 갖추다 診る 진찰하다 紹介状 소개장
お気遣い신경 쓰다, 마음 쓰다

5번
회사에서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남성화장품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 회의 어떠셨어요?
남: 응, 우리는 남성화장품 분야에 진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여: 예! 그다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에요?
남: 응. 최근 주목 받는 분야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남성화장품은 역시 사는 사람이 제한돼 있으니까.
여: 우리는 여성화장품에서 길러낸 노하우도 있고, 개발비용이 새롭게 드는 것도 아닌데 진출하지 않다니... 좀 아쉽네요.
남: 아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화장품회사 있잖아?
여: 아아, 만약 우리가 남성시장에 진출해서 라이벌이 되면,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진다는 거군요?
남: 응, 실은 그게 문제라서. 장래성을 차치하고 당분간은 여성화장품 분야에 더욱 전문성을 추구해 가자는 거지.
여: 그랬군요.

이 회사가 남성화장품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남성화장품은 그다지 주목 받지 않아서
2 개발비용이 새로 들어서
3 남성화장품회사와 업무협력을 하고 있어서
4 여성화장품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싶어서

정답 3

해설 후반부 '남성화장품 시장에 진출했을 경우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와 라이벌 관계가 된다는 부분이 문제다'라는 대화가 문제해결의 포인트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어휘 化粧品(けしょうひん)화장품 利益(りえき)이익 見込(みこ)む전망하다 培(つちか)う기르다 배양하다 ノウハウ 노하우 協力(きょうりょく) 협력 関係(かんけい)を結(むす)ぶ관계를 맺다 ライバル 라이벌 維持(いじ)する 유지하다 専門性 전문성 追求(ついきゅう)する 추구하다

6번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있습니까?

남: 요즘 왠지 피곤해 보이네요. 왜 그러세요?
여: 그게 말야. 요즘 매일 잔업이 계속돼서, 잘 수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3, 4시간 정도야.
남: 우와. 되게 힘들겠네요.
여: 응. 뭐, 그래도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할만한데. 그보다, 나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남: 네, 왜요? 하고 싶은 다른 일이라도 있나요?
여: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상사가 꽤나 엄격한 사람이라서.
남: 에, 그래요. 하지만 월급이 상당히 좋다고 하셨잖아요.
여: 그건 그런데, 뭐랄까 더 이상 남의 비위 맞추며 일하는 게 피곤해서.
남: 에~, 그래도 이 불경기에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 응, 그건 충분히 알고 있어.

여자는 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있습니까?

1 잔업이 많아서
2 상사에게 불만이 있어서
3 월급이 적어서
4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정답 2

해설 문제는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이므로, 여자의 대화 후반부에 '뭐랄까 더 이상 남의 비위 맞추며 일하는 게 피곤해서'라는 부분이 포인트이다. 잔업은 일시적인 거라 감당할 수

있고, 월급이 많은 것은 괜찮은데 상사가 엄격하다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이다. 즉 사람에 시달려 그만두는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어휘 せいぜい 기껏해야 上司(じょうし) 상사 顔色(かおいろ)を伺(うかが)う 안색을 살피다,기분을 살피다
不景気(ふけいき) 불경기 条件(じょうけん) 조건 重々(じゅうじゅう) 충분히 承知(しょうち)する 알다

7번

회사에서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왜 댄스교실을 그만뒀습니까?

여: 오케이, 이걸로 끝. 자 집에 가야지.
남: 아, 지금부터 댄스교실에 가나요?
여: 아아, 그거? 이미 그만뒀어.
남: 에? 그래요? 왜요? 아, 그러고 보니, 의상비가 장난 아니라고 했었죠?
여: 음, 그 이전에, 나하고 왠지 춤이 안 맞는 것 같아. 전혀 늘지를 않아서.
남: 그러세요?
여: 뭔가 다른걸 배워볼까 생각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게 없어서.... 아~아~ 모처럼 일이 안정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는 왜 댄스교실을 그만뒀습니까?

1 다른 교실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2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3 의상에 돈이 들어서
4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정답 4

해설 여자가 마지막 부분에 남자가 말한 의상비 이전에 나한테는 맞지 않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 핵심 포인트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어휘 衣装代(いしょうだい) 의상비 ばかにならない 무시할 수 없다
これっていうのがない 이렇다 할 것이 없다

[청해]

문제3

문제3에서는 질문 용지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로써 어떤 내용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야기 전에 질문은 없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과 선택지를 듣고 1에서 4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하나 고르시오.

1번

TV에서 리포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 여기는 좁은 공간을 살린 방 배치가 특색인 나가이씨의 댁입니다. 불과 10평의 토지에 4명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짐이나 가구의 수납은 어느 집이나 고민거리지요. 하지만 이 댁에서는 지하에 수납공간을 만들어 좁은 집이 가지는 특유의 압박감을 해소했습니다. 또, 이쪽 거실은 부엌과의 벽을 없애, 실제보다 넓게 보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리에서부터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다는, 좁기에 가능한 장점을 확실히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창문. 일반 창보다 크기 때문에 개방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덕분에 사람이 모여도 답답함을 느끼게 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모여, 집의 분위기도 밝다고 합니다.

리포터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1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 법
2 좁은 집의 살기 편함
3 협소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 궁리
4 좁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의 정

정답 3

해설 리포터가 제일 처음 '좁은 공간을 살린 방 배치가 특색인 집'이라고 했다. 나머지 '수납공간의 활용', '거실과 부엌의 칸막이 제거', '커다란 창문' 등은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한 실례를 설명 한 부분이므로 리포터의 이야기 주제는 4번이 된다.

어휘 間取(まど)り 방 배치 自慢(じまん) 자랑 坪(つぼ)평수 悩(なや)みの種(たね) 고민의 원인 収納(しゅうのう) 수납 圧迫感(あっぱくかん) 압박감 解消(かいしょう) 해소 仕切(しき)り 구분 配膳(はいぜん) 음식을 차리는 것 生(い)かす 살리다 開放的(かいほうてき) 개방적 息苦(いきぐる)しい 답답하다, 숨막히다

2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 현재, 대학전입시대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이것은 저출산으로 대학 입학 희망자 수가 정원을 밑돌아 계산상으로는 전원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유명대학 수험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대학의 경쟁률은 옛날과 전혀 변함이 없다. 하지만 한편 그 외의 대학은 지금 학생부족에 직면해 대책을 짜고 있다. 그 중에는 특색을 내서 속속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니 만일 목표분야가 명확하고 그것이 이런 대학의 전문성과 일치한다면, 지명도와 인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선생님이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1 희망하면 전원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
2 유명한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3 대학은 학생 부족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

4 대학선택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정답 4

해설 선생님 이야기의 요지는 '대학전입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명대학은 변함없이 들어가기 힘드나, 나머지 대학은 학생부족으로 인해 전문성을 높이는 곳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분야와 대학의 전문성이 일치하면 굳이 유명대학을 지망할 필요는 없다'이다. 따라서 대학선택의 기준이 반드시 유명대학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어휘 希望者数(きぼうしゃかず) 희망자수 定員(ていいん) 정원 競争率(きょうそうりつ) 경쟁률 直面(ちょくめん) 직면 対策(たいさく)を練(ね)る 대책을 짜다 特色(とくしょく) 특색 知名度(ちめいど) 지명도 とらわれる 구애되다, 얽매이다

3번

TV에서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만, 커피숍 벽의 색깔을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커피 잔의 색깔을 특히 주의해서 본적이 있습니까? 실은 색깔의 차이가 맛의 차이를 좌우한다는 것이, 실험결과 알게 됐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해도 보고 있는 색깔에 따라 느끼는 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실 때, 갈색 컵으로 마시면 상당히 진하게 느껴지고, 노란색 컵으로 마시면 연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여자는 어떤 테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 커피숍의 인테리어 색
2 커피 색의 실험결과
3 색이 미각에 미치는 영향
4 커피를 잘 타는 방법

정답 3

해설 중간에 '사실은 색깔의 차이가 맛의 차이를 좌우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이 부분만 확실히 파악했다면 나머지 구체적인 예들은 흘려 들어도 된다.

어휘 壁(かべ) 벽 あるいは 혹은 左右(さゆう)する 좌우하다 非常(ひじょう)に 상당히 濃(こ)い 진하다 薄(うす)い 연하다

4번

스포츠 센터에서 트레이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 트레이닝이라 해도 목적은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 체지방을 줄이고 싶은 분, 근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기타 등등 다양하게 계실 겁니다. 목적에 따라 트

레이닝 방법이나 회수는 달라집니다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트레이닝 전의 스트레칭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이란 몸에 부담을 줘서 조금 무리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트레이닝을 시작해 버리면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파게티를 만들 때도 우선 면을 삶지요. 삶지 않고 소스에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똑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몸의 체온을 올리면서 조금씩 부드럽게 해 갑시다.

트레이너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 트레이닝 목적
2 스트레칭의 중요성
3 부상의 원인
4 스파게티 만드는 법

정답 2

해설 중간에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트레이닝 전의 스트레칭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다.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예를 드는 것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어휘 それぞれ 그 각각 基礎体力(きそたいりょく) 기초체력 向上(こうじょう) 향상 体脂肪(たいしぼう) 체지방 筋力(きんりょく) 근력
アップする up하다 ストレッチ 스트레칭 負担(ふたん) 부담 茹(ゆ)でる 삶다
ぽきぽき 똑똑 부러지는 모양

5번

잡지 기자와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 작년부터 시작하신 신졸(그 해 졸업한 사람)채용입니다만, 설명회 참가율도 높고 순조로운 것 같은데요. 사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 글쎄요.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입이 들어옴으로 아주 많이 사내 분위기가 바뀌고 활성화 되었습니다.
여: 경험자 채용에서 신졸 채용으로 전환하신 목적도 그 점에 있는 건가요?
남: 아뇨, 작년 저희 회사에서는 그룹회사의 통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회사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 그건 목적대로 되었네요.
남: 예, 충분히 어필이 됐다고 봅니다. 또, 기존 사원에 대해서도 "신졸 채용을 시작한다는 것은 긴 안목으로 인재의 활용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는 것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 작년 신졸 사원 분들은 이미 입사해서 근무하고 계실 텐데요, 현장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남: 의욕이 넘친다고 평판이 좋습니다. 또 신졸 채용 사원은 회사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다른 사원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 신졸 채용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얻은 것이 많은 것 같군요.

남: 예. 결과적으로 회사 내외 모두 유효했다고 봅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 경험자 채용의 목적
2 기업의 어필 방법
3 신졸 사원의 평판
4 신졸 채용의 효과

정답 4

해설 신졸 채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대화가 키 포인트이다. 즉 기자가 '얻은 것이 많은 것 같군요'라고 했고, 사원 역시 '회사 내외적으로 모두 효과가 있었다'고 한 부분, 그것은 즉 신졸 채용으로 얻은 것과 그 효과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어휘 順調(じゅんちょう)だ 순조롭다 反応(はんのう) 반응 好評(こうひょう) 호평 活性化(かっせいか) 활성화 切(き)り替(か)える 전환하다 弊社(へいしゃ) 자기회사를 낮춘 말 統合(とうごう) 통합 狙(ねら)い 노림, 목표 既存(きそん) 기존 長(なが)い目(め) 긴 안목 既(すで)に 이미 愛着(あいちゃく) 애착 刺激(しげき) 자극 有効(ゆうこう) 유효

6번
TV에서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 나이를 먹어도 주위에 폐를 끼치기 않고, 죽기 직전까지 자립해 살고 싶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바램이겠지요. 연령과 함께 뇌가 쇠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막고 싶은 것이지요. 최근 뇌 트레이닝게임 등 뇌를 단련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평소와 다른 것을 해서 패턴화된 생활에 변화를 가져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기관이라 일컬어지고 있어, 즐거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신경세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기능이 둔화되기 때문에, 매일 간식 등으로 적절히 당분을 섭취하고, 또한 산책 등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의 이야기의 테마는 무엇입니까?

1 뇌가 쇠퇴하는 원인
2 뇌의 노화를 막는 방법
3 뇌가 성장하는 이유
4 뇌에 자극을 주는 약

정답 2

해설 뇌를 쇠퇴를 막고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요한 것은 영양이 부족하면 뇌

의 기능이 둔화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어휘　最期(さいご) 임종　自立(じりつ) 자립　～と共(とも)に ~과 함께　衰(おとろ)える 쇠퇴하다
～にとどめる ~로 멈춰 세우다　鍛(きた)える 단련하다　パターン化(か) 패턴화
神経細胞(しんけいさいぼう) 신경세포　栄養(えいよう) 영양　鈍(にぶ)る 둔화되다　おやつ 간식　適度(てきど) 알맞은 정도
糖分(とうぶん) 당분　摂取(せっしゅ) 섭취

[청해]

문제4

문제4에서는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문장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1에서 4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하나 고르시오.

1번

남: 어제는 민폐 끼쳐 미안했어.

여: 1 그렇게 민폐였나요?
2 네, 힘들었을 겁니다.
3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답　3

해설　상대가 사과하는 상황이므로 괜찮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정답이다.

어휘　すまない 미안하다　気(き)にする 신경 쓰다

2번

여: 굳이 살 것까지 없어요.

남: 1 역시 사는 편이 나은가요?
2 그러게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으니.
3 보면 갖고 싶어져서.

정답　2

해설　「동사+までもない」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그에 맞장구 치는 표현이 와서 2번이 정답이다.

어휘　わざわざ 일부러

3번

남: 시간 있으실 때라도, 한번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 1 예, 조만간 가십니다.
2 예, 이달 말이라면 괜찮습니다.

3 예, 놔두었으니까.

정답 2

해설 상대가 시간 날 때 한번 와 달라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 뒤에 언제가 괜찮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어휘 おいでいただく 와 주시다 そのうち 조만간

4번

여: 그때 내가 한마디 확인해 줬더라면, 이런 실수는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남: 1 아뇨, 알아채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2 에? 정말로 확인해 주셨던 겁니까?

3 예. 덕분에 실수 없이 끝났습니다.

정답 1

해설 「でしょうに」는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のに」의 의미이다. 따라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상대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표현이 와서 1번이 정답이다.

어휘 ～ないですむ ~않고 일이 해결되다

5번

여: 그한테 부탁만 해서 말하기가 좀 그래.

남: 1 그거 곤란하게 됐네요.

2 앞으로도 잘 부탁해.

3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어때?

정답 3

해설 「気(き)が引(ひ)ける」는 '마음이 꺼려지다, 주저하다'로, 맨날 부탁만해서 그한테 또 부탁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의미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어휘 たまに 가끔

6번

여: 아이를 상대로 그건 좀 어른답지 못하잖아?

남: 1 응, 던지는 건 그다지 좋지 않아.

2 그래? 좀더 차분한 느낌으로 할까?

3 아니, 진짜로 안 하면 재미없잖아.

정답 3

해설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나무라자 아이라고 봐주면 재미없다는 표현이 오는 3번이 정답이다.
어휘　大人(おとな)げない 어른답지 못하다　本気(ほんき)진심, 진지하게

7번
남: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남일 같지 않아서요....
여:　1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아, 그래서 일부러? 고맙습니다.
　　3 듣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정답　2

해설　상대가 나를 걱정하고 있으므로, 듣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맙다는 표현이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어휘　人(ひと)ごと남의 일

8번
남: 이 날, 어떻게 안 될까요?
여:　1 그럼,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2 예? 그날이라면 문제없죠?
　　3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정답　1

해설　상대가 부탁하는 상황으로,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우면 완곡하게 거절하는 표현이 오겠지만 여기서는 부탁을 들어주는 1번이 정답이다.
어휘　どうにか 어떻게　～つもりではない ~ 생각은 아니다

9번
남: 이거 사토우씨에게 반납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　1 예? 좀더 빌리고 싶은데요.
　　2 알았어요. 제가 건네줄게요.
　　3 예, 그럼 반납해주시겠습니까?

정답　2

해설　「お＋동사ます형＋いただける‘~해 주시다’의 표현을 써서 재3자에게 건네달라는 부탁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네준다고 하는 정답은 2번이다.
어휘　返(かえ)す반납하다　渡(わた)す건네다

10번
여: 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남: 1 이제 와서 말해봤자 그건 좀.
2 그러세요? 조사하면 알 수 있어요.
3 힘을 합쳐 되찾읍시다.

정답 1

해설 「取り返しがつかない」는 '되돌이킬 수 없다'는 관용표현으로 이제 와서 그런 소리해봤자 소용없다는 의미의 1번이 정답. 3번의 「取り返す」는 '상대에게 빼앗긴 것을 만회하다, 되찾다'는 뜻이므로 함정이다.
어휘 今さら 이제 와서 力を合わせる 힘을 모으다

11번
여: 저 사람, 도무지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남: 1 예?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2 네. 매우 우수한 분이지요.
3 아, 그는 손이 크니까요.

정답 1

해설 관용표현 「手(て)に負えない(おえない)」를 알면 쉬운 문제로 의미는 '감당할 수 없다'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이처럼 관용표현이 나오면 어려우므로 평소 관용표현에 관심을 갖고 익혀두자.
어휘 優秀だ 우수한

12번
남: 직접 담당자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여: 1 그럼,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자리 비우고 없는데요.
3 바로 불러주세요.

정답 2

해설 직접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으므로, 담당자가 있으면 잠시 기다리라고 답하겠지만, 여기서는 자리에 없다고 하는 2번이 정답이다.
어휘 席を外す 자리를 비우다

13번
남: 관광 겸해서, 오오사카 지인 집에 다녀왔어요.
여: 1 그러셨어요. 잘 하셨네요.
2 다양하게 보지 못해 아쉬웠네요.
3 우와, 유명한 집인가요?

정답 1

해설 ‘~겸’이란 「がてら」표현이 포인트. 관광 겸 오오사카에 다녀왔다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는 1번이 가장 적합하다.
어휘 観光(かんこう)がてら 관광 겸

14번
여: 거기까지 제가 함께해도 될까요?
남: 1 당신과 한패로 생각지 말아주세요.
2 그럼, 호의를 받아들여서.
3 예, 상관없습니다.

정답 3

해설 「ご一緒(いっしょ)する」는‘함께 동행하다’라는 뜻이며, 「～てもいいですか」로 물었으므로‘예’로 답한 경우 「～てもいいです」「～てもかまいません」,‘아니요’의 경우 「～てはいけません」으로 답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어휘 お言葉(ことば)に甘(あま)えて호의를 받아들여서

[청해]
문제 5
문제 5 에서는 조금 길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문제 용지에 메모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1 번 2 번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과 선택지를 듣고 1 에서 4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하나 고르시오.

1번
가전제품 매장에서 여자가 점원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 여기요. 세탁기를 보고 싶은데요. 예산은 5만엔 정도로, 가능하면 건조기능이 있는 게 좋은데요.... 저, 이건 얼마 정도 하나요?
남: 그 에어 세탁기는 기본적인 세탁기능뿐인 심플한 타입입니다. 이것은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크기입니다만, 25,000엔입니다.

여: 아아, 저희는 4인 가족이라 좀 더 큰 게 좋은데요.
남: 아, 그러시면, 이것보다 한 사이즈 큰 쪽이 좋겠네요. 이것과 같은 타입으로 가족용 사이즈인 아쿠아 세탁기는 40,000엔 입니다.
여: 그래요.
남: 건조기능이 있는 거라면, 이쪽 탑 세탁기는 어떠신가요? 세탁에서 건조까지 전자동으로 가능하며, 원래 65,000엔입니다만, 지금 마침 세일 중이라 58,500엔입니다. 싸게 잘 사시는 겁니다.
여: 우와, 역시 건조기능이 있는 타입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네요.
남: 그러게요. 아아, 그럼, 이쪽 간이건조기능이 딸린 비트 세탁기는 어떠신지요? 히터건조가 아니라서 완전히 건조되는 건 아닙니다만, 말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55,000엔입니다.
여: 헤에, 그런 것도 있군요.
남: 예, 이 비트 세탁기도 세일 대상이라 지금 사시면 49,500엔입니다.
여: 글쎄요. 너무 비싼 건 살 수 없고, 예산 내 금액이라도 제대로 건조가 안되면 좀... 일단은 세탁만 가능한 걸로 할까. 그럼....

여자는 어떤 세탁기를 선택합니까?

1 에어 세탁기
2 아쿠아 세탁기
3 탑 세탁기
4 비트 세탁기

정답 2

해설 여러 종류를 설명하는 경우, 들으면서 각각 메모를 자세히 해야 한다. 처음 여자가 제시한 조건은 예산 5만 엔에 건조가 가능한 4인용 세탁기이다. 1번의 경우 세탁기능만 있고 사이즈가 작아서 안 된다고 했고, 2번은 건조기능은 없지만 1번보단 사이즈가 크다고 했으나 결정은 안 한 상태, 3번은 조금 가격이 비싸다고 했고, 4번은 예산 내이지만 완전 건조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여자가 '예산 내라도 완전 건조가 안 되는 건 좀(곤란함), 그럼 일단 세탁만 가능한 거로 한다'고 했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이처럼 처음 조건과 바뀌는 경우가 흔하므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어휘 予算(よさん) 예산 乾燥(かんそう) 건조 単身(たんしん) 독신 一回(ひとまわ)り한 치수 お買(か)い得(とく) 싸게 잘 사는 것
簡易(かんい) 간이 乾(かわ)かす 건조시키다 干(ほ)す 널다 大幅(おおはば) 대폭 短縮(たんしゅく) 단축

2번
회사에서 부장과 여자 2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1: 부장님, 가을 트렌드 세미나 회장, 슬슬 검토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 그러게, 가급적 교통편이 좋은 곳이 좋은데.
여2: 예, 주요 역과 직결돼 있거나, 도보권내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 아, 그래. 그리고 이번에는 지방에서 참가하는 사람도 있어 인원수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세

팅 여하에 따라 수용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곤란해.
여1: 그렇네요. 하지만 대략적인 인원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여2: 아, 지방에서 참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전날 와서 1박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네요?
남: 아, 그런가. 그럼, 근처에 묵을 곳이 있어야 하는데...
여1: 알겠습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몇 개 픽업해 보겠습니다.
여2: 예, 부탁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설자체도 어느 정도 괜찮은 곳이 좋겠네요. 미용업계 분도 많이 모이고, 회사 이미지와도 관계되니까요.
여1: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회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1 교통편이 좋을 것
2 수용인원을 조절 가능할 것
3 근처에 숙박시설이 있을 것
4 설비가 갖춰져 있을 것

정답 3

해설 회장 결정에 있어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묻는 문제로 지방에서 참가하는 분을 위한 숙소가 근처에 있는 것이 중요하며, 그 점을 우선으로 해서 픽업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어휘 検討(けんとう) 검토 交通の便(こうつうのべん) 교통 편 直結(ちょっけつ) 직결 徒歩(とほ) 도보 圏内(けんない) 권내 収容(しゅうよう) 수용
調節(ちょうせつ) 조절 大体(だいたい) 대체, 대략적인 把握(はあく) 파악 優先(ゆうせん)で 우선순위로
ピックアップ 픽업, 골라내다 ～にかかわる ~와 관계되다

3번
합동기업설명회 회장에서 담당자 설명을 들은 후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 여러분, 오늘 합동기업설명회는 업계별로 네 개의 코너로 나눠져 있습니다. 흥미있는 업계를 자유롭게 방문해 주세요. A코너에서는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계 기업을 비롯해 IT·통신, 건설, 기계관련과 같은 이과계열 분들에게 인기인 기업이 부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B코너는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계열, TV, 광고 등, 매스컴 계열 기업입니다. 오늘은 별도 공간에서 취직 컨설턴트에 의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C코너는, 상사, 슈퍼 등의 유통, 또,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D코너에서는 미국, 중국, 한국 등 외국계 기업이 부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1시부터, '취직활동, 성공의 길'이란 제목으로 강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각자 방문을 시작해 주세요.
남: 어느 부스로 갈지 결정했어?
여: 그게, 난 아직 업계가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 강연은 들을 생각인데. 하야시군은 금융계열을 목표로 하고 있지?
남: 응. 취직은 은행 아니면, IT기업으로 결정했는데, 최근 다른 업계에도 흥미가 생겨서, 오늘은

상사에서 이야기를 들어 볼까 해. 다나카씨는 아직 결정 못했으면, 우선은 컨설턴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보는 게 어때?

여: 응, 그럴까. 하야시군은 상담 안받아도 돼?

남: 응, 괜찮아. 그보다 강연은 나도 듣고 싶었어.

여: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나면 되겠네.

어휘 合同(ごうどう) 합동 訪問(ほうもん) 방문 証券(しょうけん) 증권 金融系(きんゆうけい) 금융계 理系(りけい) 이과계열 設(もう)ける 마련하다
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 엔터테인먼트 スペース 공간 商社(しょうしゃ) 상사 流通(りゅうつう) 유통
衣料(いりょう) 의류 雑貨(ざっか) 잡화 外資系(がいしけい) 외국계 기업 ～と題(だい)する ~라고 제목을 달다

질문 1 남학생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1 A코너
2 B코너
3 C코너
4 D코너

정답 3

해설 남학생이 원하는 곳으로 최근 다른 업계에도 흥미가 생겼다고 하며 상사에 가본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3번 C코너가 된다.

질문 2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1 A코너
2 B코너
3 C코너
4 D코너

정답 4

해설 보통이라면 여학생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라고 나오나, 문제에서는 둘이 같이 가는 곳을 물었다는 점에 주의! 여학생은 업체가 정해지지 않아 강연을 듣는다고 했고, 남학생 역시 마지막에 강연은 나도 듣고 싶다고 했으므로 강연을 하는 곳은 D코너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